

## <실습1>

```
<!DOCTYPE html>
<html>
<head>
<title> &lt;급등하는 전셋값>></title>
</head>
<body>
<h3 title="툴팁을 작성하였습니다.">'전세대출'또 사상 최대...올해 100조 넘을 것</h3>
<hr>
<div style="background-color:skyblue; padding:20px;">
정부의 잇단
<span style="color:red">부동산 대책</span>
에도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또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지
난 7월말부터
<span style="color:red">임대차법</span>
이 시행되면서 전셋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b>지속될 전망 </b>
이다.
</div>

<div style="background-color:skyblue; padding:20px;">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b>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span style="color:red">96조4712억</span>
으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 들어서만 16조180억원이 급증했다.
<span style="color:red">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span>
이 올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iv>

<ul style="background-color:skyblue; padding:20px;">
업계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전세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
<b>업계 전문가 </b>
<span style="color:red">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span>
확산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을 이
사철에 전세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어
<mark>전세난</mark>
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ul>

<del>삭제할내용</del><br>
<ins>추가할 내용</ins><br>
<pre>
자신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보여주는
pre작성
```

</pre>

<p>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p>

</body>

</html>

## <실습2>

```
<!doctype html>
<html>
<head>
<title>실습과제2</title>
</head>
<body>
<h3 title="툴팁을 작성할게요">내가 좋아하는 자연 4가지</h3>
<hr>
<div>
<image src = "노을.jpg" width="200" heigh="200" alt="노을">
<image src = "비.jpg" width="200" heigh="200" alt="노을">
<image src = "숲.jpg" width="200" heigh="200" alt="노을">
<image src = "화창한날씨.jpg" width="200" heigh="200" alt="노을">
</div>
<hr>
```

```
<div>
<ol type="1">
<li><b>노을</b>
<ul>
<li>
놀. 서쪽 지평선 위쪽 하늘에
<mark>붉게 나타나는 빛 현상</mark>
의 하나로 빛의 산란에 의해 생긴다. 저녁에 해가 지면 빛이 통과하는 공기층이 낮보다는 두꺼워져서, 파장이 짧은 푸른색의 빛은 공기 분자 또는 미립자에 의하여 산란되어 관측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span style = "color:red">파장이 긴 붉은색의 빛</span>
은 산란되지 않고 관측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침노을 역시 동쪽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빛이 대단히 긴 통과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빛은 도중에서 모두 없어져 붉은색만 남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ul>
<p>
```

```
<li><b>비</b>
<ul>
<li>
대기 속의
<mark>수증기가 승화</mark>
하여 구름으로 응결된 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상에 떨어지는
<span style = "color:red">천연수의 하나. </span>
기상현상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것으로 바람과 더 붙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기상학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집중 호우에 관한 원인규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강우의 기상조건은 기류가 한데 뭉칠 때, 대류성(對流性)이 상승기류로 변할 때, 산에 기류가 부딪쳐서 강제적으로 상승기류가 일어날 때 등이다. 강우량의 측정단위는 mm이다.
</ul>
<p>
```

```
<li><b>산림</b>
```

<ul>  
<li>  
<mark>임목과 임지</mark>  
를 합하여  
<span style = "color:red">산림</span>  
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2조에서는 농지·주택지·도로, 과수원·다포·양수포, 하천·제방·구거(溝渠:개골창)·유흥지(遊休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죽(竹)을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목·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산림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이용개발의 유무에 따라 원시림·시업림(施業林), ② 산림의 성립조건에 따라 천연림·인공림, ③ 수종의 혼합상태에 따라 단순림·혼효림, ④ 임목의 종류에 따라 침엽수림·활엽수림, ⑤ 임목의 연령에 따라 동령림·이령림·노령림·장령림·유령림, ⑥ 임목의 성숙상태에 따라 과숙림·성숙림·미숙림, ⑦ 임관(林冠)의 구성상태에 따라 단층림·복층림·연속층림, ⑧ 토지의 조건에 따라 산악림·평지림·구릉림, ⑨ 지리적 분포에 따라 열대림·난대림·온대림·한대림, ⑩ 경영목적에 따라 용재림·연료림·풍치림·방제림·시험림, ⑪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 ⑫ 작업중에 따라 교림·중림·왜림 등으로 구분한다.

</ul>  
<p>  
  
<li><b>화창한 날씨</b>  
<ul>  
<li>  
흔히  
<span style = "color:red">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span>  
을 말하며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mark>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mark>  
를 말한다.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마치 둥근 빵과 같이 편평하게 보이며, 수평방향은 연직방향보다 멀리 느껴진다. 그래서 서울 부근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대략 37°(위도에 따라 다르다)이나 목측으로는 45° 이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천정(天頂)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며, 보통 지평선의 거리는 머리 위의 거리보다 3~4배 멀리 느껴진다. 이와 같은 하늘의 편평도(扁平度)를 나타내는 데는 지평선에서 천정까지의 천공호(天空弧)의 중심이 지평선과 만드는 고도각을 사용한다.

</ul>  
</ol>  
</div>  
<hr>

<ol type="A">  
<li>순서있는 리스트"ol" => 하나  
<li>순서있는 리스트"ol" => 둘  
<li>순서있는 리스트"ol" => 셋  
</ol>

<ul>  
<li>순서없는 리스트"ul" => 하나  
<li>순서없는 리스트"ul" => 둘  
<li>순서없는 리스트"ul" => 셋  
</ul>

```
<dl>
<dr>dl을 이용한 <b>데이터 타이틀</b> 적는 부분</dr>
<dd>dl을 이용한 <b>데이터 본문</b>을 적는 부분</dd>
</dl>
<p>
```

```
</body>
</html>
```

## <실습3>

```
<!doctype html>
<html>
<head><title>프레임 사용</title></head>
<body>
<h3>프레임이용해서 사진키우기</h3>
<hr>
<iframe name="main" width="400" height="350">
</iframe>
<br>
<hr>

<h3>이미지 목록</h3>

<a href="사진1.html" target="main">
</img>
</a>
<a href="사진2.html" target="main">
</img>
</a>
<a href="사진3.html" target="main">
</img>
</a>
<br>

<a href="사진4.html" target="main">
</img>
</a>
<a href="사진5.html" target="main">
</img>
</a>
<a href="사진6.html" target="main">
</img>
</a>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

```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사진출력용</title></head>
<boby>

</img>

</body>
</html>
```



## <실습4>

```
<!doctype html>
<html>
<head><title>다양한 형태의 동영상</title></head>
<body>
<h3>프레임이용해서 다양한 동영상 재생하기</h3>
<hr>
<iframe name="main" width="700" height="500">
</iframe>
<br>
<hr>
```

```
<h3>이미지 목록</h3>
```

```
<a href="영상1.html" target="main">
</img>
</a>
<a href="영상2.html" target="main">
</img>
</a>
<a href="영상3.html" target="main">
</img>
</a>
<br>
```

```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title></head>
<body>
```

```
<video src="테넷 예고편.mp4" name="영상1" width="700" height="500" autoplay>
</video>
```

```
</body>
</html>
```

```
=====
<!doctype html>
<html>
<head><title></title></head>
<body>
```

```
<video src="테넷 예고편.mp4" name="영상1" width="700" height="500" controls>
</video>
```

</body>

</html>

=====

<!doctype html>

<html>

<head><title></title></head>

<body>

<a href="#영상재생">

</img>

</a>

<a id="영상재생">

<video src="테넷 예고편.mp4" name="영상1" width="700" height="500" controls>

</video>

</a>

</body>

</html>

## 실습1

<금융하는 전셋값> x +

← → ↺ 🏠 ⓘ 파일 | C:/Users/안원영/Desktop/Wy/2.%20웹프로그래... ☆ 📄 🗑️ 👤 ...

### '전세대출' 또 사상 최대..."올해 100조 넘을 것"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또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지난 7월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96조 4712억**으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 들어서만 16조180억원이 급증했다.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전세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 업계 전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전세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삭제할내용  
추가할 내용

자신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보여주는  
pre작성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 실습2

<금융하는 전셋값> x 실습과제2 x +

← → ↺ 🏠 ⓘ 파일 | C:/Users/안원영/Desktop/Wy/2.%20웹프로그래밍\_김... 🔍 ☆ 📄 🗑️ 👤 ...

### 내가 좋아하는 자연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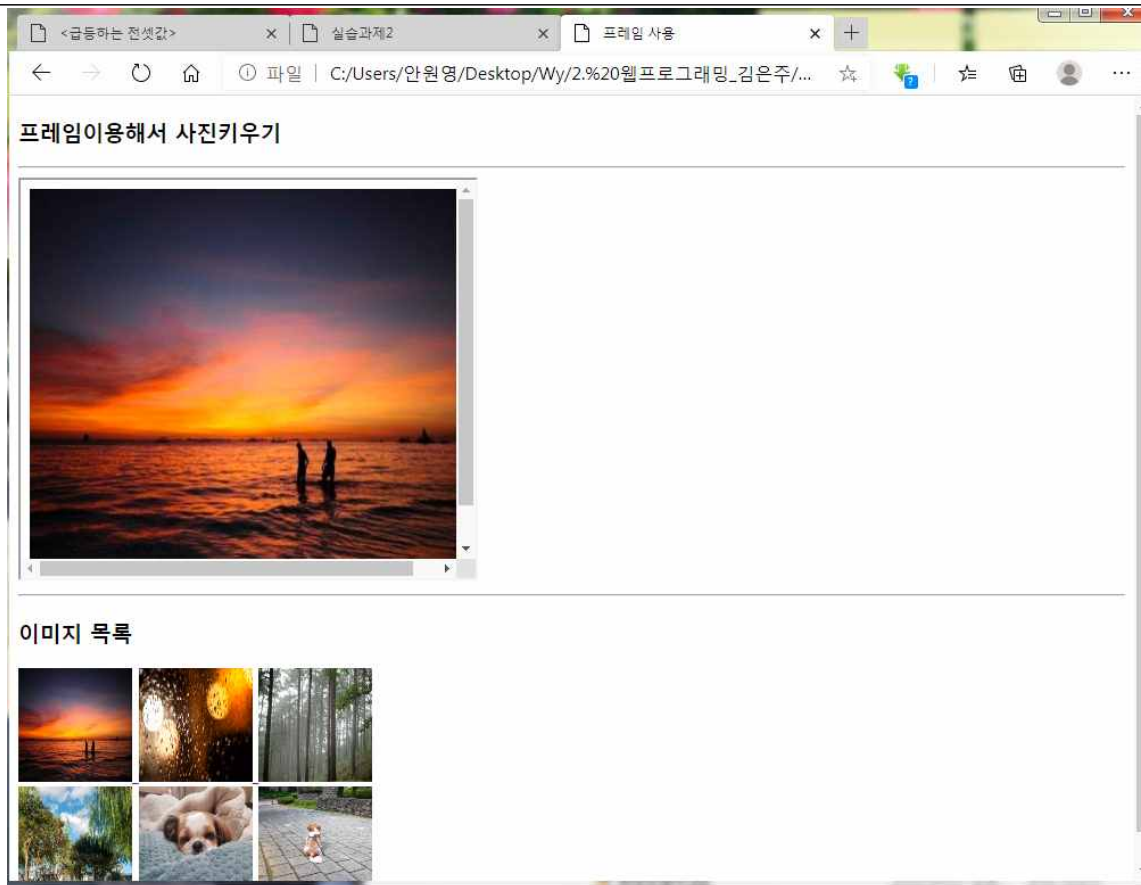
- 노을
  - 서쪽 지평선 위쪽 하늘에 **붉게 나타나는 빛 현상**의 하나로 빛의 산란에 의해 생긴다. 저녁에 해가 지면 빛이 통과하는 공기층이 낮보다는 두꺼워져서, 파장이 짧은 푸른색의 빛은 공기 분자 또는 미립자에 의하여 산란되어 관측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파장이 긴 **붉은색의 빛**은 산란되지 않고 관측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침노을 역시 동쪽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빛이 대단히 긴 통과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빛은 도중에 모두 없어져 붉은색만 남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 비
  - 대기 속의 **수증기가 응화**하여 구름으로 응결된 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상에 떨어지는 **천연수의 하나**. 기상현상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것으로 바람과 더 붙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상학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관한 원인규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설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강수의 기상조건은 기류가 한데 뭉칠 때, 대류성(對流性)이 상승기류로 변할 때, 산에 기류가 부딪쳐서 강제적으로 상승기류가 일어날 때 등이다. 강우량의 측정단위는 mm이다.
- 산림
  - **임목과 임지**를 합하여 **산림**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2조에서는 농지 주력지 도로, 과수원 다묘양수포, 하천제방 구거(溝渠, 가울창) 유류지(遊流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竹)을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목(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임지(林地)와 스탁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이용개발의 유무에 따라 원시림(原始林), ② 산림의 성립조건에 따라 천연림(天然林), ③ 수종의 혼합상태에 따라 단순림(純林), ④ 임목의 종류에 따라 집합수림(集合同種林), ⑤ 임목의 연령에 따라 동령림(同齡林), 장령림(長齡林), 유령림, ⑥ 임목의 성숙상태에 따라 과숙림(過熟林), 미숙림, ⑦ 임관(林冠)의 구성상태에 따라 단층림(單層林), 연속층림, ⑧ 토지의 조건에 따라 산악림(山地林), 구릉림, ⑨ 지리적 분포에 따라 열대림(熱帶林), 온대림(溫帶林), 한대림, ⑩ 경경목적에 따라 울창림(鬱蒼林), 희박림(稀疏林), 방목림(放牧林), ⑪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國有林), 사유림, ⑫ 작업법에 따라 고밀집림(高密度林), 등으로 구분한다.
- 화창한 날씨
  - 흔히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마치 둥근 빵과 같이 관중하게 보이며, 수평방향은 연직방향보다 멀리 느껴진다. 그래서 서울 부근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대략 37°(위도에 따라 다르다)이나 북쪽으로는 45° 이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천정(天頂)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보통 지평선의 거리는 머리 위의 거리보다 3~4배 멀리 느껴진다. 이와 같은 하늘의 관경(觀景)을 나타내는 데는 지평선에서 천정까지의 천공로(天穹弧)의 중심이 지평선과 만드는 고도각을 사용한다.

A. 순서있는 리스트'에' => 하나  
B. 순서있는 리스트'에' => 둘  
C. 순서있는 리스트'에' =>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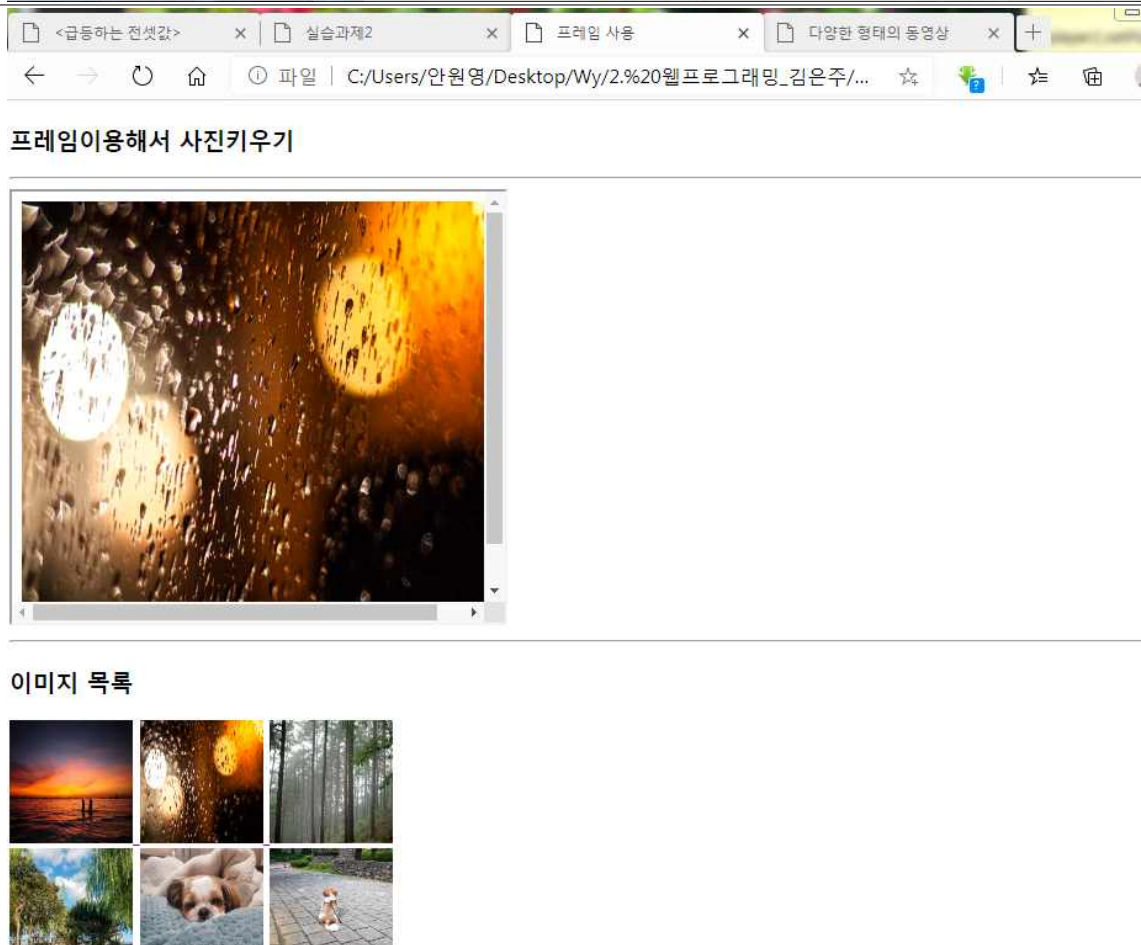
• 순서없는 리스트'에' => 하나  
• 순서없는 리스트'에' => 둘  
• 순서없는 리스트'에' => 셋

다들 이용한 데이터 타이틀 적는 부분  
다들 이용한 데이터 본문 적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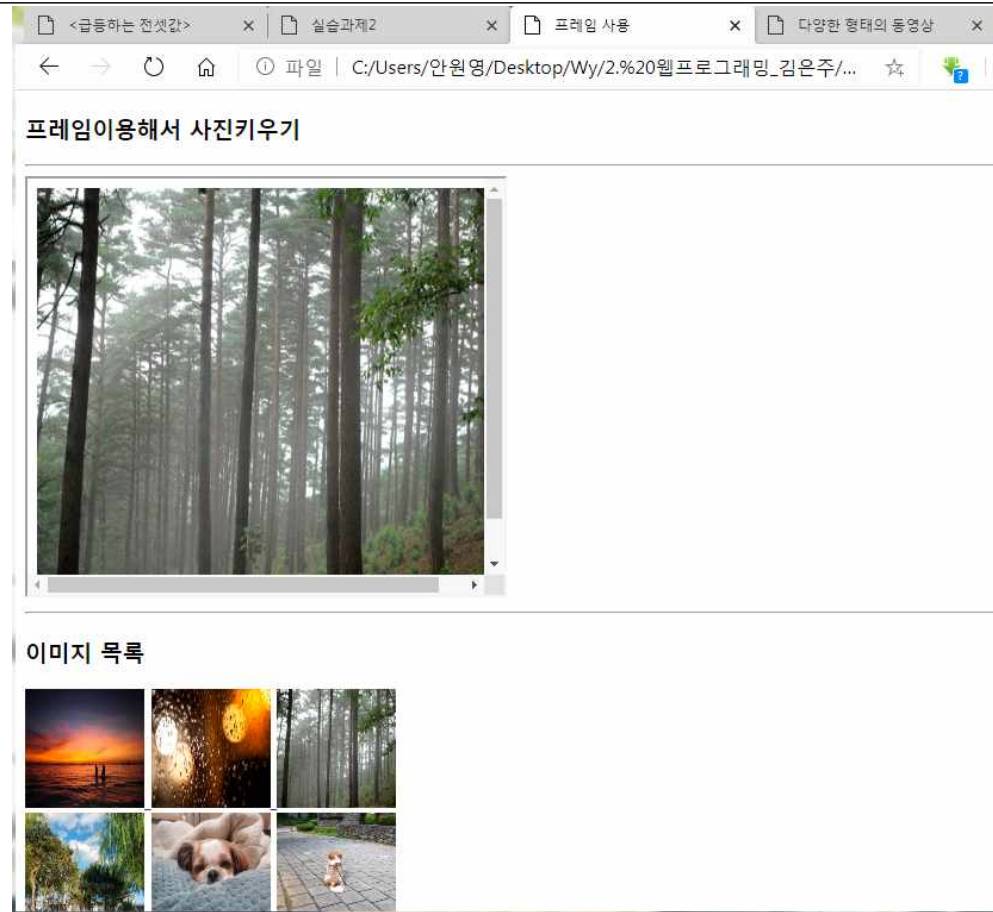
실습3-  
1



실습3-  
2



실습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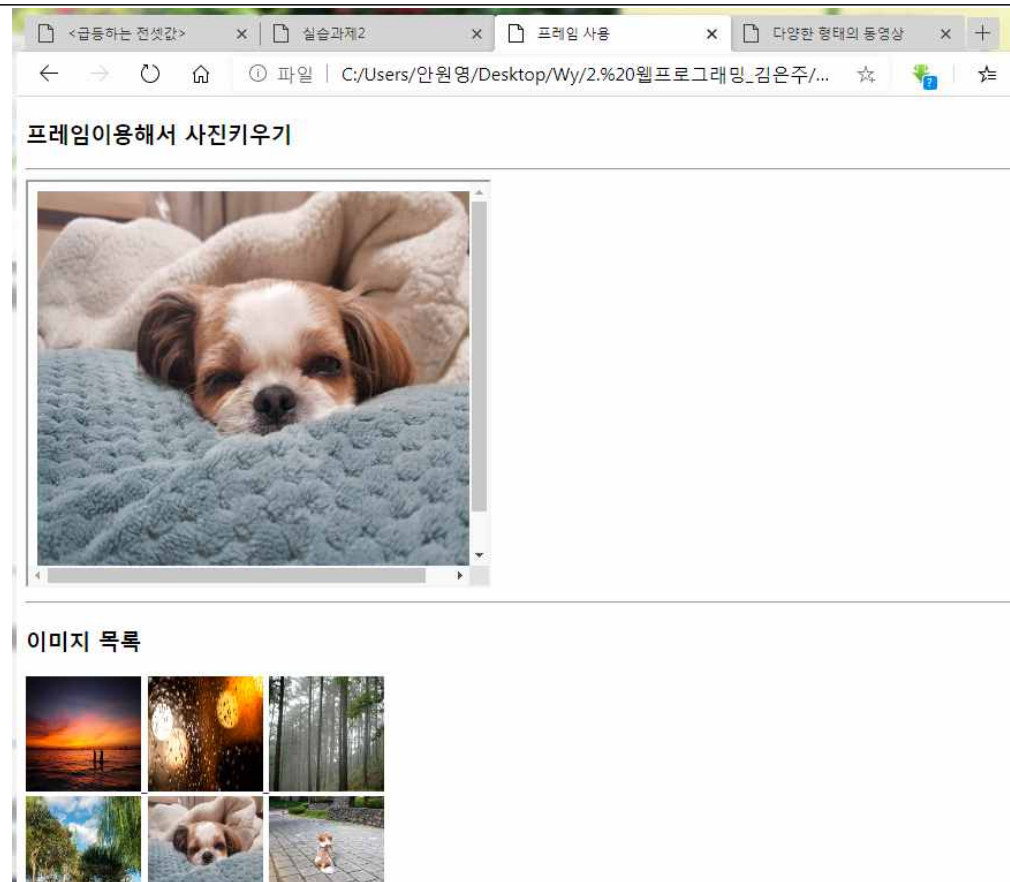


실습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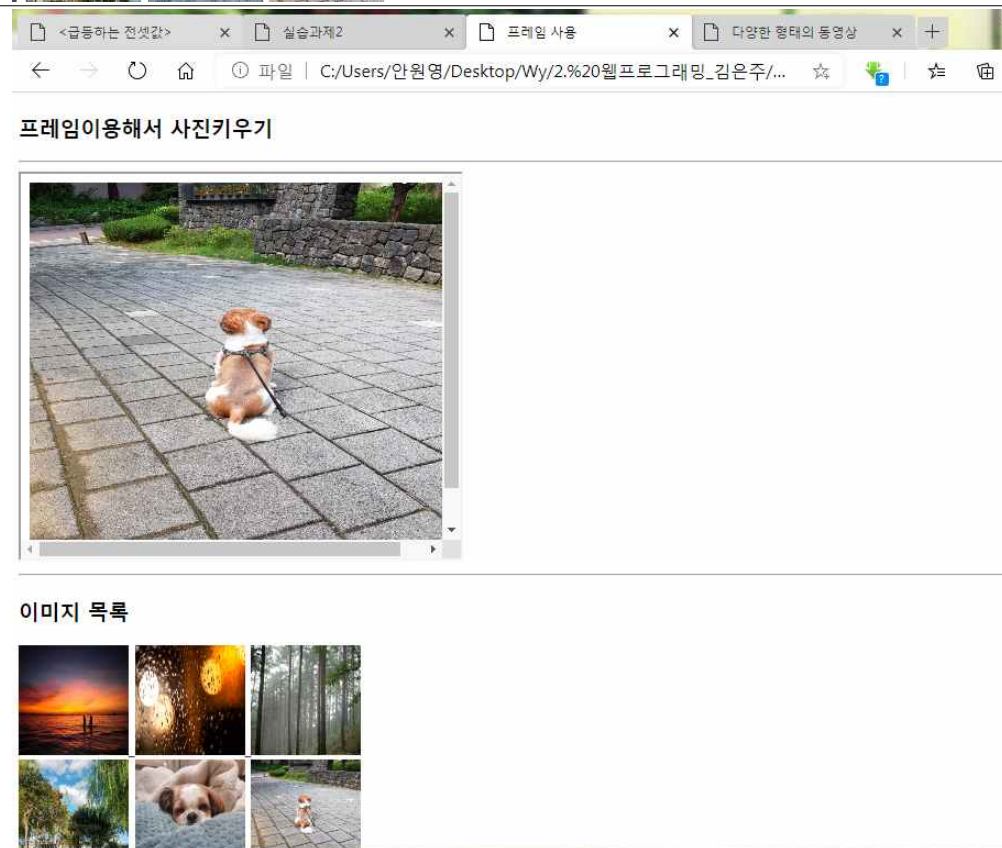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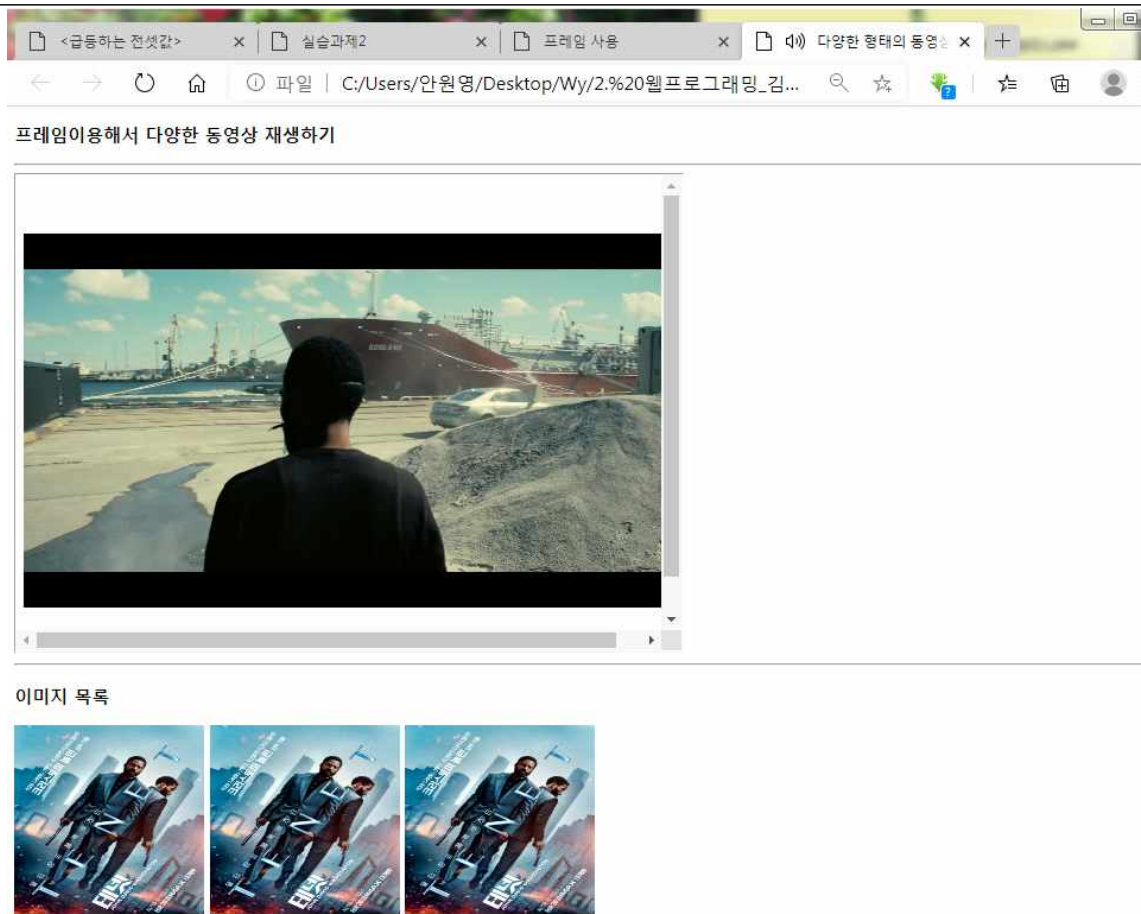
실습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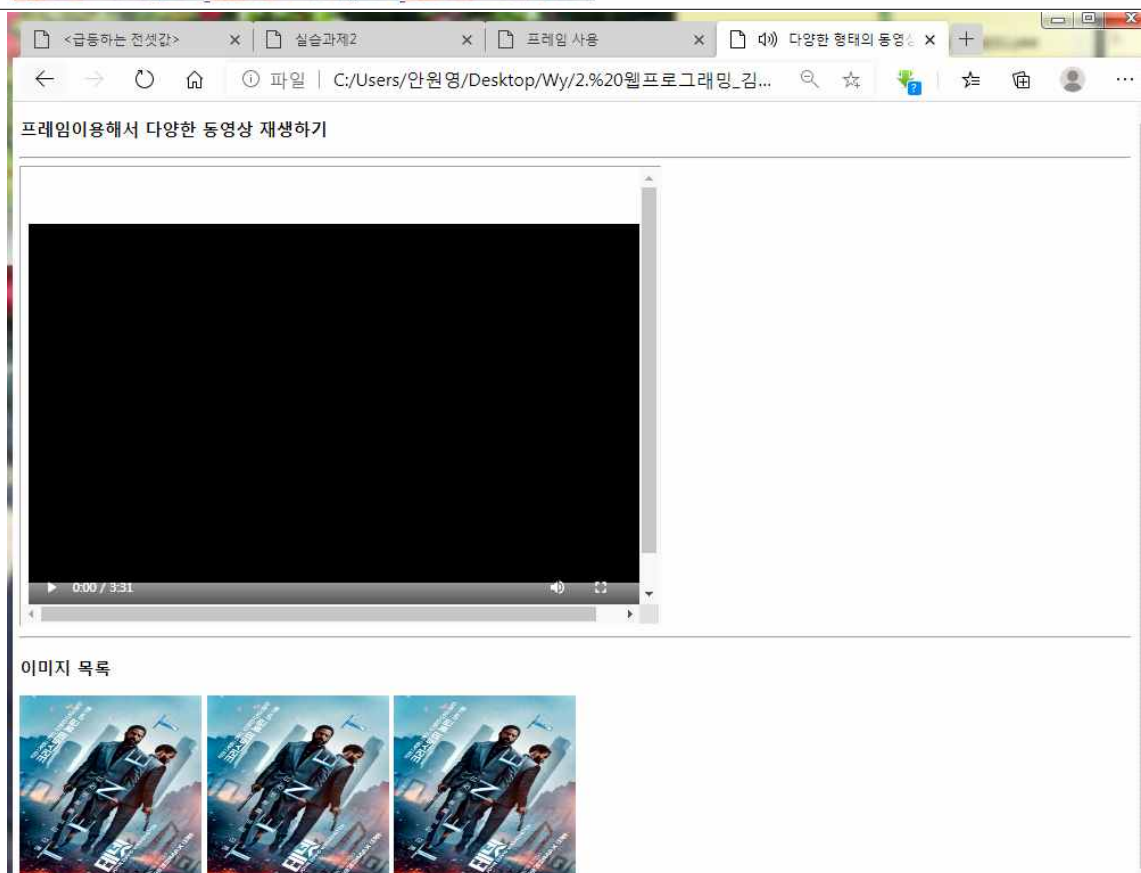
실습3-  
6



## 실습4-1



## 실습4-2



실습4-  
3

